

蝸牛角上之爭(와우각상지쟁)

–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싸우나? –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

石火光中寄此身(석화광중기차신)

隨富隨貧且歡樂(수부수빈자환락)

不開口笑是癡人(불개구소시치인)

(白樂天詩, 對酒 중에서)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싸우나?

부싯돌 불빛 속에 몸을 맡긴 것인데,

부귀빈천 모두 기쁨과 즐거움이니,

입을 열어 웃지 않으면 바보라네!

(백낙천 시, 대주 중에서)



민경조

前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코오롱건설 부회장

“달팽이의 더듬이 끝에 얹혀 살면서 무슨 큰 일이 있다고 그렇게도 다투면서 사는가? 부싯돌 불 부딪혀 불씨를 구하려는 지극히 짧은 순간에 이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덧없는 인생살이 아닌가? 부유한 삶이나 가난한 삶이나 모두 다 기쁨이요 즐거움이려니, 크게 입을 열어 웃으며 살지 못한다면 바로 바보들이 아닐까?”

저자(著者)는 코오롱건설 CEO로 재임하던 1999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국건설경영협회에서 회원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협회의 회원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오랜기간 CEO로 재직한 경험을 담은 『논어 경영학』(2009년, 청림출판)이 있다.

우주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는 지구가 속한 태양계와 비슷한 천체가 천억 개가 더 있다고 한다. 또 ‘우리 은하계’ 와 같은 규모의 은하계가 전체 우주 속에 또 천억 개가 더 있다고 한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속에서도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러한 우주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살다가 가는 존재라는 게 당나라 당시 백낙천의 시, 대주(對酒)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여기 이곳에서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아무도 대답을 주지 않는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만하다. 이념(理念)으로, 연령(年齡)으로, 성별(性別)로, 빈부(貧富)로 각각 갈라서서 원수(怨讐)같이 아귀다툼하는 우리의 현실을 각자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채근담(菜根譚)에도 백낙천의 시 대주에서 영감을 받아 ‘달팽이 뿔 위의 다툼(蝸牛角上之爭)’에 관한 얘기가 전한다.

石火光中爭長競短幾何光陰, 蝸牛角上較雌論雄許大世界. (菜根譚)

석화공중 쟁장경단 기하광음. 와우각상 교자논웅 허대세계.

부싯돌 불빛 속에 길고 짧음을 다투니 그 세월이 얼마나 길겠는가?

달팽이 뿔 위에서 자웅을 다투다니 그 세계가 얼마나 크겠는가? (채근담)

위의 두 가지 이야기는 장자, 즉양 편(莊子, 則陽篇)에 있는 얘기가 그 근원이 되고 있다.

옛날 전국시대 위혜왕(魏惠王)과 제위왕(齊威王)이 맹약을 맺었는데, 제위왕이 배반하자, 위혜왕이 자객을 보내 그를 없애려고 했다. 위나라

대신 중에 공손연(公孫衍)과 계자(季子)가 전쟁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이고, 화자(華子)가 양비론(兩非論)을 재기하자, 혜왕은 곤경에 빠지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서 재상이었던 혜자(惠子)가 현인 대진인(戴晉人)을 혜왕과 만나게 했다. 대진인은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달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소!”. “그 달팽이 왼쪽 뿐에 나라가 있는데 촉씨(觸氏)라 하고, 오른쪽 뿐 위에 있는 나라는 만씨(蠻氏)라 했습니다. 때마침 두 나라가 서로 영토를 놓고 싸워서 주검이 몇 만이나 되게 즐비 했고, 패군을 쫓아갔다가 십오 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답니다.” 혜왕이 “아! 그건 거짓말이군요!” 하자, 대진인은 “그럼 제가 임금임을 위해 실제 사실을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선 이 사방 위아래의 우주공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다. 혜왕이 “끝이 없는 거요.”라고 하니까, 대진인은 “그럼 정신을 무한한 공간에서 노닐게 할 줄 알면서, 이 유한한 땅으로 돌이켜본다면 이 나라 따위는 있을까 말까 한 하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하고 대답하였다. 혜왕이 “그렇소.”하고 대답하자 대진인은 “유한한 이 땅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우리나라 속에 양(梁)이라는 고을이 있으며, 양 속에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만씨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혜왕은 “구별이 없소”하고 대답했다. 이후고 대진이 그 곳을 물러나가자 혜왕은 멍하니 얼이 빠진 듯했다.

전반에서는 좁디좁은 땅덩어리를 기반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시대 은원(恩怨), 공리(公利), 시비(是非)의 마음을 가진 자는 난인(亂人)이며 다만 청허(淸虛)의 도를 찾아야 한다고 하고, 후반에서는 대진인을 등장시켜 우주의 무한에서 본다면 인사(人事)란 얼마나 비소(卑小)한가를 말한 뒤, 사소한 한 가지 일에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이 문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날에도 작은 돌섬 하나를 놓고 으르렁대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 서로 내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달팽이 뿐 위에서 싸우는 저 촉씨와 만씨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하물며 우리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좌우(左右), 남녀(男女), 노소(老少), 빈부(貧富) 신구(新舊)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인정하지 못하는 요즘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 숙연한 자세로 되돌아가서 나아갈 길을 모색해볼 때라 생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갈등과 배척사이에서 헤매다 말 것인가?